

[제주잠녀] 84. <2부>발로 달는 잠녀들의 삶 (55)남원읍 신흥리

어머니 바다에서 어머니를 만나다

등록 : 2007년 08월 31일 (금) 13:15:54
최종수정 : 2007년 08월 31일 (금) 13:15:5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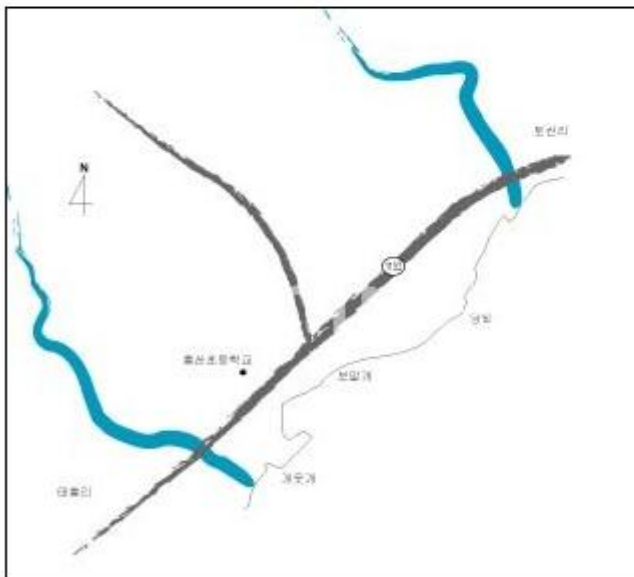


어머니는 어머니를 알아본다.

물 흐름이 느려 육상에서 밀려오는 생활폐수와 쓰레기를 가슴에 쌓아 올리며 허영게 병들어가고 있지 만 어머니 바다는 그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또 다른 어머니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았다.



△소라 모패 철저한 공동관리



▲ 남원읍 신흥리 수역

남원읍 신흥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 잠녀는 35명. 74만㎡의 넓지 않은 어장이지만 백화현상으로 문드러지는 바다밭에서 잠녀들이 '희망'을 캐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35명이 바다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6명을 제외하고는 60대 이상, 그 중 10명 정도는 70대 후반에서 80대의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금채기를 제외하고 이곳 잠녀들은 소라를 잡는다. 전복이나 해삼, 성게를 잡기도 하지만 양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연간 1만3000~1만4000kg의 소라를 채취하는데 전량 계통출하를 한다.

3월부터 8월까지 6일 작업을 하지만 파도가 세면 3~4일도 일하기 어렵다.

전복은 수시로 종패를 뿌리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한해 10kg도 거두기 어렵다.

이곳 신흥리 어촌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라 모패 사업. 잠녀들이 자부담으로 보목리 등에서 7cm이상의 소라 모패를 사다 공동 양식장에 뿌린다.

종패를 뿌리고 거뒀들이는 것이나 모패를 뿌려 거뒀들이는 것이나 물량은 비슷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이 많다.

고문주 신흥리 어촌계장은 “모패를 뿌려두고 다음해 산란까지 기다리고 나면 그 이듬해 70~80% 상당은 거뒀들이다”며 “산란을 마친 후 모패를 잡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도 2450kg의 소라 모패를 뿌렸다. 물질로 잔배가 굵은 잠녀들을 설득, 모패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고 어촌계장은 “투자를 해야 거뒀들일 수 있다”고 계속해서 설득했다”며 “철저한 계통 출하를 통해 투자가 이윤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잠녀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흥리의 소라 모패 사업은 3년전부터 진행됐다. 비용부담이 적지않지만 기대효과가 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기다려 주지 않는 바다

신흥리 잠녀들의 양식장 작업은 1년 2~3차례 정도 이뤄진다. 전체 74ha 중 양식장 면적은 27ha정도. 이곳에서 거뒀들인 ‘물건’은 철저히 공동 분배된다.

과수원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히 바다에만 의존하는 잠녀는 3~4명 정도지만 바다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버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걱정도 많다. 15년 전만해도 천초 작업이 이뤄졌었는데 10년전부터는 천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다가 많이 황폐화됐다.

중산간에 과수원들이 늘어난데다 하천 정비를 하면서 물길이 좋아져(?) 큰 비만 왔다하면 온작 쓰레기가 밀려내려오는데다 생활하수도 실시간으로 바다에 흘러든다.

태흥2리에 만들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고 어촌계장은 “생활하수 부분만 어떻게 해결된다면 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치워도 치워도 계속 쌓이는 쓰레기며 하수 찌꺼기에 가슴까지 문드러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해안도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곳에도 올해 바닷잡이 어장이 문을 열었다. 토산 경계 ‘넛바르’다. 홍보가 덜되 아직 찾아오는 이가 많지 않지만 맨손으로 바닷물을 잡을 수 있고 외줄 낚시 등도 가능하다고 목소리에 탄력이 붙는다.

양식장만은 지키려는 어촌계와 마을 어장인데 왜 이용을 제한하느냐는 마을내 알력이 아직 남아있다고도 했다.

무엇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차 때문이다.

하늘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해도 커보이지 않은 키가, 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만큼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바다가 생명인 사람들에게 그나마 열심히 가꾸고 있는 바다밭에 누군가 손을 댄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만한 일이지만 그저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구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별취재반=김형훈 문화체육팀장, 김대생 동영상·인터넷팀장, 고미 사회팀 차장, 해녀박물관>

‘잠녀문화의 바탕은 상호의존적 공생관계’

안미정씨 박사논문서 강조

우린 ‘왜?’라는 물음을 늘 던진다. 잠녀 연구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예전부터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나잠이라는 형태의 어로방식이 그것이다. 왜 잠녀들은 전통적 어로방식을 고집할까. 잠녀 연구가라면 한번쯤 품었을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을 안미정씨가 내놓았다. 그는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를 통해 제주의 잠녀 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적인 삶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의 논문은 ‘공유지(共有地)의 비극’이 쉽사리 초래하지 않는 이유도 잠녀문화의 공동체적 특징에서 찾고 있다.

흔히 자본 축적의 논리는 공동체 파괴를 부른다. 가렛 하딘은 마을 목장의 사례를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말하고 있다. 공동의 목초지에 지탱가능한 용량을 초과한 소를 방목함으로써 공동체는 파국에 이른다는 논리다.

제주 잠녀사회도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 있을 만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미정씨는 “제주 잠녀(그는 논문에서 잠녀가 아닌 잠수로 쓰고 있다) 사회의 상호의존적인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제주도 연안에서 이뤄지는 잠녀들의 물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여전히 전통적이다. 그러나 안씨는 고소득을 얻기 위해 기계기술을 도입한다면 자원이 고갈되는 건 물론이고, 소수자들만의 어로행위가 될 뿐이라고 진단한다.

아울러 안씨는 생활상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도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잠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잠수굿’도 지속적인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안씨는 말한다. 잠수굿에서 나타나는 ‘씨들임’은 그들의 바다밭에 파종을 하는 ‘해양농경’을 상징하고, 그건 바로 자원재생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잠녀들은 잠수굿이란 의례를 통해 그들이 행하는 물질의 권위를 얻는다고 분석했다.

안미정씨는 지난 2001년 잠녀연구에 뛰어들었으며, 2005년부터 구좌읍 김녕리에 거주하며 이번 논문을 위한 현지연구 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잠녀사회에 접근 방법으로 직접 물질을 배우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